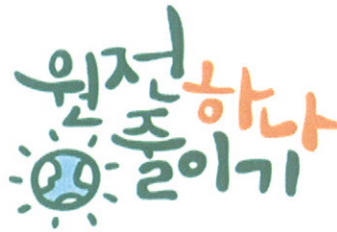


시 민

주무관	자원순환과장	기후변화정책관	기후환경본부장	행정1부시장
협 조	물관리정책관 물재생시설과장 음식물자원화팀장			

문서번호	자원순환과-1388
결재일자	2013. 1. 2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

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결 대책



2013. 1.

기후환경본부

목 차

1 적치된 음식쓰레기 완전 청소 ----- 1

2 음식물 육상처리 ----- 4

3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협상 ----- 5

4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----- 6

음식물 쓰레기 처리 완결 대책

1 | 적치된 음식쓰레기 완전 청소

□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

(단위 : 톤/일)

총계	공공처리시설(32%)				민간위탁업체(68%)			
	소계	사료화 (도분, 송과, 강동)	퇴비화 (서대문)	에너지 (동대문)	소계	사료화	퇴비화	기타 (원형이용)
3,347	1,071	699	274	98	2,276	559	997	720

※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31개 업체는 경기, 충청권소재

○ 음식물쓰레기 적체 현황

- 관악 600톤(적환장 250, 지역적체 350), 노원 200톤(지역적체)에 누적되었던 잔량이 남아 있으나, 현재 적체 물량 해소 중임

□ 발생원인

○ '13.1.1일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 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단가 인상 요구

-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**음자협**(☎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)에서 산출한 **처리단가(127,000원)**를 제시

□ 음자협은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127,000원의 산출기초는 '10년 환경부 「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산정자료」에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인상을 및 음폐수의 해양배출에서 육상처리로 변경함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임을 주장

※ '10년 환경부 기준 97,140원(호기성퇴비화) → 음자협 127,980원

- 자치구에서는 인상요인은 있으나, 개별업체별로 처리방식, 처리 규모, 종전 해양배출의 처리비율 등에 따라 처리 비용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127,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봄

※ '10년 환경부 기준은 97,140원이었으나, 현재 7~8만원대에서 계약됨

〈자치구별 민간위탁 계약 만료 기간〉

위탁계약 만료시기	'12.12.31	'13.1~12월	'14.12.31
자치구	용산, 중랑, 강북, 양천, 강서, 구로, 서초, 영등포, 강남 (9개구)	· 동작(1월) · 마포(6월) · 관악·금천·성북 ('13.12월)	중구, 노원

※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외 : 9개 자치구

- 종로, 광진, 성동, 동대문, 도봉, 서대문, 은평, 송파, 강동

- 민간업체(31개 업체)에 위탁하는 16개 자치구 중에서

- '12.12월말 계약기간 만료된 자치구 : 9개 자치구

- 음식물 쓰레기는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하고, 1~2개월간 임시 계약
- 계약 금액은 127천원 또는 현재 처리단가로 하되 추후 조정기로 함

- '12.12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7개 자치구도 위탁업체에서 단가 인상 요구(동작, 마포, 성북, 관악, 금천, 중구, 노원)

-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인상 협의가 진행 중으로 민간업체에서 유리한 계약체결을 위해 혹은 기계 고장 이유로 제한적으로 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적체된 자치구가 발생

그동안 조치사항

- '13.1.14. 서울시, 음자협, 자치구과장 의견교환 및 합의
 - 음식물쓰레기는 우선 정상적으로 수거하고, 서초구 처리단가 연구용역 결과(2월중) 나오는 대로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
- '13.1.17. 환경부 주관 3개 시·도과장, 음자협 협의
- '13.1.18. 자치구 과장 회의
 - 계약전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정상수거 독려, 표준단가산정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

음식물 쓰레기 적체 물량 해소 : 금주 말까지

2 | 음폐수 육상 처리

음폐수 발생 및 처리 당초 계획

(‘12.10월말 기준)

음폐수 발생량 (톤/일)	해양배출(622)		공공처리시설			민간위탁 업 체
	공공	민간	소계	동대문, 송파 서대문	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	
1,800	194	428	969	748	221	209

- **공공 : 194톤/일**(중량물재생센터 하수연계처리- 도봉 46, 강동 148)
 - 도봉·강동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5개 자치구 음폐수 처리-1.2일부터 반입
- **민간위탁업체 : 428톤/일**(기존 209톤 → 637톤)
 - 민간업체 자체처리시설 확충(262톤) 및 음폐수 전문처리업체 위탁 확대 (166톤/일)
 - ‘12.10~11월 2회 시·자치구 현장 점검시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및 확인(시설 및 위탁 계약서 점검)

※ 31개 민간위탁업체 점검(1.21~1.23) : 시 12명, 자치구 30명

- 점검내용 : 음식폐기물처리량, 음폐수 발생량, 음폐수 자체처리 및 전문처리업체 위탁량, 음폐수 보관량

□ 민간시설 처리 용량(428톤)에 대한 대책

- 민간업체에서 육상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물재생센터로 하수연계처리 : 400톤/일
-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계획 : 중랑(100톤/일), 서남(300톤/일) 우선 반입
 -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본격 가동시('13.5월) 하수연계 처리물량 200톤/일 감소 예정

※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건립 : 500톤/일

- 3개 시도(서울·경기·인천) 음폐수 안정적 처리 위해 수도권매립지내 음폐수 처리시설 건립(서울 200, 경기 200, 인천 100)

3 |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협상

□ 자치구별 계약단가 현황 : 평균 77,000원

위탁처리 단가(톤당)	70~74천원	75~80천원	81~85천원	86~90천원
자치구	노원, 은평, 마포 양천, 강서, 동작 영등포, 강남	중구, 중랑 성북, 강북	서초구	용산, 구로 금천, 관악

□ **음자협 인상요구액**(2010년 환경부 산정기준 대비)

- 습식시설(사료화) : 90,170 → 124,000원/톤
- 건식시설(사료화) : 103,821 → 134,000원/톤
- 호기성시설(퇴비화) : 97,149 → 128,000원/톤

□ **협상 추진 방향**

- 음자협 요구액과 자치구 과장 등으로 구성된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협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
- 자원순환사회연대를 포함한 관련 단체, 전문가로 “표준단가 산정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합의 도출
 - ※ 시민단체, 음자협, 구청, 시청, 전문가 11명으로 구성, 운영
-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음폐수는 전부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되, 처리에 따른 사용료 부과
- ‘13년 1월말까지 합의하며, 합의전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완벽하게 수거 처리

□ **추진일정 - ‘13. 1월말까지 완료**

- ‘13.1.18. :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
(시 1, 자치구 6, 전문가 2)
- ‘13.1.23. : 음자협과 ‘표준단가 산정 위원회’ 구성·협의 개시
(자원순환연대 1, 음자협 2, 서울시 2, 자치구 3, 전문가 2)
- ‘13.1월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

4 |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확충

□ 자체처리 목표 : 37%('12) → 69%('16) → 95%('18)

구 분	'12년	'13년	'16년	'18년
발생량(톤/일)	3,347	3,012	2,343	2,009
자체처리(톤/일)	1,240(37%)	1,360(45%)	1,610(69%)	1,910(95%)
민간위탁(톤/일)	2,107(63%)	1,652(55%)	733(31%)	99(5%)

※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목표 : 10%('13) → 30%('16) → 40%('18)

□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: 5개소 1,240톤/일('12) → 8개소 1,910톤/일('18)

- 강동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현재 처리용량을 13.2월까지 증설
(240톤/일→360톤/일)
- 강서처리시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'16년까지 조기 건설
(250톤/일)
 - 서남물재생센터와 경계지점에 있어 하수연계처리에 효과적임
 - 타당성조사('13년), 설계('14년) 및 건설 공사('15년~'16년)
- 종량처리시설(200톤/일) 및 은평처리시설(100톤/일)은 민자유치
방식 등을 통해 '17년 및 '18년까지 완공